



KWMA가 준비한 코나 통일포럼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열렸다. ©KWMA

세계선교 위한 통일한국 전략과 로드맵 코나 통일포럼 열려... KWMA 내 통일선교전략회의 구성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해진 가운데 북한 북음화의 문도 언제 어떻게 활짝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해 온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통일한국을 위한 공동체적 사명을 깨닫고 선교 전략과 로드맵을 점검, 보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세계선교를 위한 통일한국: 전략과 로드맵'을 주제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북한 사역자들과 KWMA 산하 주요 교단 및 선교부 책임자, 국내 선교단체 대표, 중국·미국·캐나다 등에서 온 한인 디아스포라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KWMA는 이번 포럼을 통해 '통일선교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교계와 선교계가 힘을 모아 통일선교 전략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조용중 KWMA 사무총장이 발표한 '2017 통일 준비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회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50곳 중 70%가 넘는 36곳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전략 관련 조직과 구조는 34곳이, 통일 예산은 42곳이 없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80% 이상은 앞으로 통일 준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뚜렷했고, 대내외 정보 공유, 기도 및 집회, 공동훈련과 공공기금 조성 등 연합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통일한국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상되는 문화충격을 대비해 미리 통일세대를 양성하고, 북한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방안 등 국내외에서 진행할 통일 사역들을 논의했다.

북한 사역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 사역자, 다문화화를 경험한 한인교회 등이 앞장서 북한 상황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 전 영역에서 변혁

이 일어나도록 총체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미 북한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거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인을 섬기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사역자에 대한 이해와 지지, 협력도 통일 이후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KWMA는 "북한 사역은 성격상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남북관계 흐름에 민감하게 영향받는다"며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양한 북한 사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선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전략적 접근 및 로드맵을 그리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한 번의 모임으로 모든 문제를 다루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참석자들이 매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북한 사역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황경일 목사 제19회 정기총회 열려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가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역대하 20:12)를 주제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황경일 목사를 선출했다.

황경일 목사는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등 연합기구 회장을 비롯, 노회장 및 교계 단체장을 두루 맡아왔다. 미기총은 20주년을 맞아 20년사 발간 등 단체의 중요 사역들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미기총 신임 대표회장 황경일 목사는 "부족하지만 20여 개 단체를 섬겼던 경험을 살려 총성을 다해 부흥의 회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면서 "세기총과의 연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특히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대표회장을 역임하게 되는 상임회장에는 김동욱 목사(뉴저지 만나교회)가 선출됐으며, 지역 공동회장은 이대우 목사(동부), 민승기 목사(서부), 나성근 목사(남부), 심평중 목사(중부)로 구성됐다. 임원은 △사무총장 이재택 목사

△총무 이종명 목사 △서기 김진하 목사 △부서기 마바울 목사 △회계 이장중 목사 △부회계 박정오 목사 등 뉴욕지역 목회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미기총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장영춘 목사(퀸즈장로교회 원로), 이한우 목사(브라질 선교사), 라흥채 목사 등 3인에게 크리스천상을 수상했다.

또 정기총회 기간 중에는 첫날 이한우 목사의 브라질 선교 보고 이후 둘째 날 문석호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정기총회 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자인 김요한 목사가 한국교회의 통일대비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미기총은 미주 한인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1997년 5월 29일 시카고 중앙교회에서 각 지역 한인 교회협의회 회장 및 경증회장이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대표회장에 박희소 목사를 선출하며 설립됐다.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는 심향구, 송정명, 한기흥 목사가 대표회장을 지낸 바 있다.



미기총 제1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 황경일 목사를 비롯한 신구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가운데 꽃다발을 들고 있는 전영현 직전 대표회장과 오른쪽 황경일 신임 대표회장.

"예수영광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Olympic Blv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Pico Blvd.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5-3180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PCUSA 미국장로교 남가주 하와이 대회 KPC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

9월 21일 목요일
Sep. 21st Thur.

2017 500 YEARS Reformation

장소 Place **토랜스 제일 장로 교회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 Tel 310 618 2222 / Fax 310 782 0937

오후 세미나 **2:00 PM**
 Prof. Joseph Small 전 PCUSA 총회 Director of Theology and Worship
 'The Great Purposes and Uncertain Future of the Church'

저녁 집회 **7:30 PM**
 Dr. 김창환 현 풀러신학교 코리안센터 원장
 '개혁신앙 중심의 공적교회' (행10:1-8, 47-48)

美 복음주의권, 전통적 결혼 지지한 ‘내쉬빌 선언’

“이성애적 결혼 외 어떤 성관계,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은 죄”

미국 복음주의계 목회자 150명 이상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신념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내쉬빌 선언문’으로 알려진 문서는, “이성애적 결혼 외의 어떤 성관계도 죄이며, 동성애적 부모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것도 죄다. 또 동성애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실함 및 증거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보수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을 천명하고 있다.

선언문의 각 조항은 전통적인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성애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도 비판하고 있다.

14개로 이뤄진 각 조항은 “우리 세대의 신실함이란 세상의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선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를 믿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잇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지 않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번 문서는 내쉬빌에서 개최된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총회에서 나왔으며, 지난달 29일 ‘성경적 남성과 여성위원회’(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가 공개했다.

남침례회 스티브 게인즈 총회장,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회장, 남침례회 신학대학교 알버트 몰러 총장, 가족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 등 복음주의계 주요 인사들이 이 문서에 서명했다. 존 파이퍼 목사, J.I. 페커 목사, 프랜시스 찬 목사, 제임스 톱슨 목사, 웨인 그루넬 목사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다음은 선언문의 내용이다.

21세기 초 복음주의기독교인들은 역사적 전환의 때에 살고 있다. 서양 문화의 탈기독교화가 더욱 증가하면서, ‘인간이 된다’는 의미에 대한 거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우리 시대의 정신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거나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는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인격적인 육체로 지음 받은 사실도 포함돼 있음을 부인한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일

부가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 선호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총만하고 지속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근시안적인 길로 대체됐고, 이 길은 곧 인류의 생명을 파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세속적인 영은 기독교 교회에 큰 도전을 가져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경적인 확신, 명확함,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 시대의 영과 섞일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기로 부끄럽없이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할 것인가? 교회가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에 반문화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해나갈 것인가?

우리 세대의 신실함이란 세상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선포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기독교의 성경은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가르쳐준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충성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를 잇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잇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지 않고는 우리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알 수 없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가려는 시도는 어리석음 뿐 아니라 절망적이다.

우리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구원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가져준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총만케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고, 기독교 성경에 계시된 인간의 성(sex)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확정하고 부인하기로 했다.

제1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서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언약적, 성적, 임신이 가능한 일생의 연합으로서 결혼을 만드셨음을 확인한다.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신 교회와의 언약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

혼을 동성 간, 일부다처 등의 관계성으로 만드셨음을 부인한다. 또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계약이라는 것도 거부한다.

제2항 우리는 모든 인류를 향해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이 결혼 밖에서의 육체적 순결과 결혼 안에서의 충실함이라고 확인한다. 우리는 혼전 혹은 혼외에 이취지는 성관계에 대한 어떤 애착, 욕구, 헌신도 부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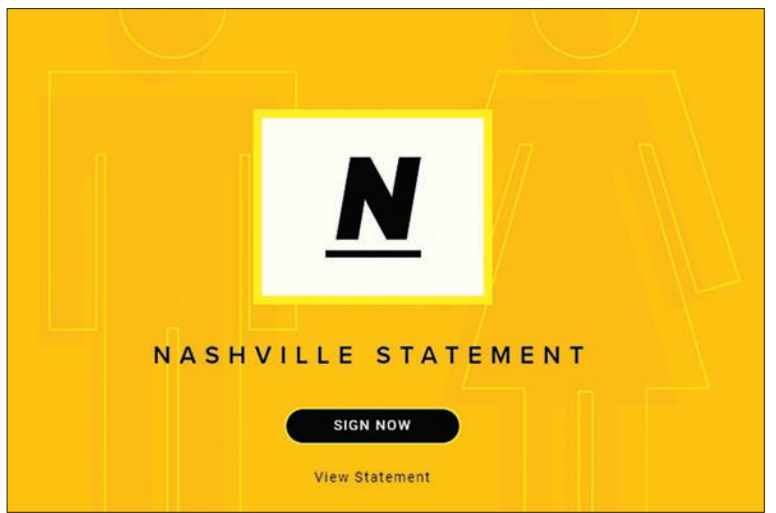
제3항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구별된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거룩하게 정해진 남녀간의 차이점들이 존엄성과 가치 면에서 남녀간의 불평등을 야기함을 부인한다.

제4항 우리는 거룩하게 정해진 남녀간의 차이점들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반영하고 인류의 선과 번영의 수단이 된다고 확인한다. 우리는 이같은 차이점이 타락의 결과나 극복해야 할 비극임을 부인한다.

제5항 우리는 남녀간 재생산 구조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자아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육체적 특이성(physical anomalies)이나 심리적 조건들이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성과 자의식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리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부인한다.

제6항 우리는 육체적 질병으로 성(sex)의 발달에 문제를 갖고 태어난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다른 모든 이들과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한다. ‘날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이들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환대를 받으며, 그들이 알고 있는 한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생물학적 성과 관련된 모호함이 그리스도께 즐거이 헌신하며 열매맺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7항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은 반드시 성경에 드러난 창조와 구원 안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확인한다. 우리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의식을 수용하는 것은 창조와 구원 안에 두신 하나님의



내쉬빌 선언문 웹사이트 이미지 캡처

거룩한 목적과 일치함을 부인한다.

제8항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성적 이끌림을 경험하는 이들도 모든 기독교인들처럼, 삶의 순결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총만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확인한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성적 이끌림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선의 일부임을 부인한다.

제9항 우리는 죄가 결혼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성적인 부모덕성을 함양으로써 성적인 욕구를 왜곡한다고 확인한다. 이같은 왜곡에는 이성애적 음란과 동성애적 음란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는 성행위에 대한 욕구 패턴을 견디는 것이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10항 우리는 동성애적 부모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것도 죄이며, 동성애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실함 및 증언과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동성애적 부모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것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야 하는, 도덕적 무관심의 문제가 아님을 부인한다.

제11항 우리가 남성과 여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식의 말을 해야 하는 어떤 책임도 부인한다.

제12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로운 용서와 변화의 능력을 주시며, 이 용서와 능력이 죄적인 욕구를 죽이고 주님께 합당한 가치로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한다고 확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적인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성적 죄에 빠졌다고 여기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결의 능력을 주시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부인한다.

제13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자의식을 버릴 수 있게 한다고 확인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서 자의식과 생물학적 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거룩한 관용’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의식을 제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14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죄사함과 영생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최고의 보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는 주님의 팔이 짧아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보는 테필린(Tefillin) 세미나

“약속의 땅을 찾아 갑시다”

한국교회의 미래 대안을 형성하고 있는 히브리식 사고 및 체현을 통해 2세와 3세의 차세대 양육원리와 비전을 신명기를 통해 보게됩니다.

특징

1. 히브리식 사고(3통 사고)로 쉽게 성경 원전해석
2. 히브리식 체현(5특 체현)으로 성경 원전해석
3. 미주 최초로 테필린 세미나를 통해 수천년간 내려온 유대인 교육에 숨겨진 비밀을 배움

- **강사** : 강신권 박사(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 **일시** : 2017년 9월 21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교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교재비** : \$20
- **인원** : 20명 (* 자리가 한정되어 있음으로 예약 바랍니다.)



강사: 강신권 박사 Dr. Paul Kang

▪ **주관**: 토브성경원전 연구소(Tov Bible Institute) ▪ **문의**: (213)739-0403, (213)434-1170



8월 29일 JAMA가 본부 이전을 알리는 목회자·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JAMA 본부 텍사스로 이전 글로벌 캠퍼스로 행정 본부와 스태프 이동

북미주 지역 한인 2세들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해 온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가 본부를 LA에서 텍사스 린데일로 이전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앙회복을 통해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라”는 비전을 김춘근 교수가 받은 후 시작된 JAMA는 그동안 수십 차례의 JAMA 컨퍼런스와 중보기도 컨퍼런스, 목회자들을 위한 토털 리더십 포럼, 청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GLDI(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등 다양한 사업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수년 전부터 기독교 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 텍사스 린데일에 471 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총 500만 달러가 필요한 상황에서 300여 명의 개인과 40여 교회가 헌금을 모았고 특히 한 사업가가 250만 달

리의 매칭 펀드를 약속하면서 이 계획은 가시화 됐다.

이를 위해 JAMA는 현재도 모금 중이며 특히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비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8월 29일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목회자·언론인 간담회에서 JAMA는 린데일에 소재한 글로벌 캠퍼스를 소개하고 본부가 이 캠퍼스로 이전함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JAMA 설립자 김춘근 교수와 대표 강순영 목사가 참석해 직접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김춘근 교수

김 교수는 목회자들에게 “LA는 한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JAMA가 본부를 이전하더라도 지속적으로 LA 교회들과 협력하며 동역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캠퍼스에서 이뤄질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며 목회자들의 협력과 기도를 부탁했다. JAMA는 이곳에서 차세대 목회자 멘토링, 영어 연수 프로그램, 유스 리더십 포럼, 총체적 선교 훈련, 전문인 사역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대표가 되어 다민족 연합기도회 등으로 JAMA 사역에 박차를 가해온 강순영 목사는 그동안 동역한 남가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 언론사 등에 감사를 표했다. 또 LA를 떠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JAMA의 사역이 더욱 확대되는 것에 큰 기대를 표했다.



사우스베이 목사회원들이 정기 기도회로 모였다.

“목회는 곧 선교다” 사우스베이 목사회 9월 정기기도회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회장 윤목 목사)가 9월 정기 기도회를 가디나선교교회(이호민 목사)에서 가졌다.

윤목 회장의 인도로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 설교는 사도행전 16장 6-10절을 본문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상훈 목사(주비전교회)가 전했다.

이 목사는 “목회는 곧 선교라는 원리를 깨닫게 된 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쳤다”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자”고 말했다.

이어 사우스베이 지역의 복음화, 고국의 정치적 평화와 복음화, 미국과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총무 안병권 목사가 광고하고 이호민 목사가 축도함으로 기도회를 마쳤다.

한편, 사우스베이목사회는 오는 9월 24일 오후 5시 30분부터 남가주살롱교회(김준식 목사)에서 교회 연합 사우스베이 연합찬양제를 개최한다. 총 8개 교회가 참여하고, 목회자 부부합창단도 찬조 출연할 예정이다.

문의) 310-715-9902

남가주교역자회 북핵 반대 기도회 미주 한인 입장 대변하는 성명 발표 예정

미주성결교회 3개 지방회(엘에이지방회, 엘에이동지방회, 남서부지방회)로 구성된 남가주교역자회(회장 김희창)가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놓고 기도회를 연다.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나성성결교회(1324 S. Berendo St. Los Angeles CA90006)에서 열리는 이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에 관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회장 김희창 목사는 “한국교회가 행복과 웰빙으로 포장된 채로, 진리되신 예수님과 거리감을 지닌 채로, 민족적 리더십을 상실한 채로 예수 십자가의 제자도를 외면한 자기교회 중심, 외형 중심의 목회 행태를 개혁해야 한다. 또 민족적 사활이 달린 중요한 애국적 시기임을 체감하면서 남가주교역자회는 민

족을 살렸던 선열들의 애국심령을 회복하여 기도회를 가지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행사에서는 김희창 목사가 사회를 맡으며 김성식 목사(토렌스우리교회)가 기도하고 구영모 목사(나성성결교회)가 설교하며 주신 목사(미주세한교회)가 합심기도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어 신용석 목사(로고스라이프교회)가 광고하고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가 축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단체는 최근 남가주성결교회 친선체육대회와 남서부지방회 홀리리바이벌성회, 성광회 가을여행 등을 잘 마쳤다고 보고했다.

또 2017년 6월 남가주교역자 가족수양회에서 11명의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사실을 알리며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미주장신 ‘성서와 칭의론’ 주제 인문학 포럼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오는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성서와 칭의론(Study on Justification in the Bible)”이란 주제로 권연경 교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초청해 인문학 목요포럼을 연다.

권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풀러신학교(M.Div.), 예일대 신학부(S.T.M.), 런던대 킹스칼리지(Ph.D.)

등에서 공부했다. 현재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풀러신학교에 교환교수로 있다. <로마서 산책>,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는 법>,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외 다수의 책을 저술했다.

미주장신은 재학생들에게 인문학 소양을 고취할 뿐 아니라 남가주 지역에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기적으

로 목요포럼을 열고 있다. 현재까지 두뇌 과학과 영적 형성(최개런 교수), 기독교 진리와 사회소통(박동식 교수), 성경, 생태, 생명신학(이상명 총장)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다. 이 목요포럼은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행사다.

문의) 562-926-1023
주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정 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아메리칸 대학교 신학대학원 LA 여성 목사 전도연구원을 개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 목사는 몇 명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많아야 수 십명이겠지”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여자 목사는 수천 명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 목사들은 고민입니다. 손에 안수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청빙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가요? 아직도 한국교회는 남성 목사들을 선호합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다른 자격을 다 갖추고도 개 교회 청빙을 얻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여성들이 수 백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꿈을 현실이 되게 만들 때입니다. 임종의 침대에서, 나는 유감스럽게 살았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일을 했다고 알게 될수 있을까요? 참으로 주님께 헌신충성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배우십시오.

- 2017년 프로그램**
- 선교학 박사(D. Miss.) 72 학점 + 논문
 - 전도학 박사(D. Evan.) 76 학점 + 논문



아메리칸 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김혜성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전화 : (323)732-7356, (818)730-1947, Fax (323)733-3041
e-mail: jsnahm@hotmail.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32>

은혜한인교회와 GMI 그리고 김광신 목사님

문득 오늘의 선교 칼럼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무언가 잊은 것 같고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무얼까 생각하다가 발견하였다. 김광신 목사님이였다. 선교 부흥의 꿈을 갖고 칼럼을 쓰면서 어찌 김광신 목사님과 은혜한인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선교적 열매인 GMI를 더 일찍 말했어야 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누가 필자에게 닮고 싶은 목사님을 묻는다면 필자는 미주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김광신 목사님을 말하겠다. 물론 은혜한인교회는 자랑스런 한인 이민교회의 선교적 선두주자의 모범을 잘 보여준 교회이다. 오늘 칼럼을 쓰면서 나는 몇 가지 기록과 역사적 사료를 박희성 목사가 쓴 '가라, 간다'라는 제하의 책에서 빌려 쓴다.

김광신 목사님은 42세라는 이른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한 후 목사가 되어 교회 개척을 꿈꾸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깊은 기도와 고민 끝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세우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김 목사님을 붙잡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피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이 그의 심장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영성, 인성, 리더십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한 것이 '선교'임을 알았다. 그리고 선교를 붙잡았다. 자신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선교지를 향했다.

교회를 세운 후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신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노력, 그것은 전 교인의 선교 운동이었다. 그리고 은퇴까지 뛰어온 그와 교회의 발자취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졌다. 필자는 신학교 시절에 비행기 한 대를 전세내어 한 교회 성도들이 선교지를 향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 믿지 못했다. 그러

나 그것은 사실이었고 지금까지 선교의 전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를 갖고 온 몸을 다해 선교하기로 작정한 교회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은혜한인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알았다.

"한 목회자와 한 교회의 선교적 헌신과 꿈을 들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할 수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본다. 60여개국에 400명에 이르는 선교사 가정을 파송하고 구 소련 지역에만 1200개가 넘는 교회 개척, 중국에 3000여개, 베트남에 400여개, 방글라데시에 250개, 아프리카 지역에 400여개 등의 선교사들의 사역에 힘입은 교회 개척이 어떻게 한 교회를 사 용하시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선교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로 뭉친다. 자신들의 문제는 뒤로 하고 선교지의 문제부터 앞장서는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를 이끈다. 담임목사의 승계도 모범적이고 은혜롭게 이어져서 개척 시기의 선교 정신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진다.

필자는 그 교회와 목사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리더십들, 그들의 선교 열매인 GMI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시대 앞장서는 선교 주역이 계속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중국 기독교 탄압 심화돼

차이나에이드 밥 푸 목사 "1년간 박해 사례 20.2% 증가"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에서 종교 탄압으로 17년간 특별 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에 포함된 중국에서 기독교인과 중국교회를 향한 박해가 거세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내 인권탄압과 종교핍박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중국을 탈출하려는 지하교회 교인과 인권운동가들을 돕는 비영리기구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밥 푸 목사는 최근 한국 순교자의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기독교인 탄압이 문화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중국 내 핍박 사례는 2015년 634건에서 2016년 762건으로 늘면서 1년 만에 20.2%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기간인 2015년과 2016년 사이, 신앙을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147.6% 증가했으며 그 안에 1,800여 명의 교회 지도자가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에는 4만 8천여 명이 신앙을 이유로 직접 공격받고, 3,500여 명이 단기적으로 수감됐는데, 이 중 300여 명이 결국 형을 받고 체포돼 감옥에 갇혔다. 이 외 많은 가정교회가 감압 때문에 폐쇄되고 교회 재산이 몰수당하는가 하면 학교의 종교 활동 금지, 신앙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조사를 받았다.

중국 본토 출신인 밥 푸 목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캠퍼스 선교, 지하 가정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다. 베이징 중국공산당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공산당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가정교회를 섬기며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비밀신학교 강의 등을 하는 이중생활을 하다 1996년 불법전도로 부인 하이다와 두 달간 투옥됐다. 이후 1997년 종교 망명자 신분으로 미국으로 도주, 2002년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중국의 종교 자유와 법 제정 촉진을 위한 차이나에이드를 설립했다.

최근 2-3년 종교 박해 심각해져

밥 푸 목사는 "중국 헌법 36조항에는 중국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상 인권과 시민권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2-3년간 종교 자유에 관한 부분이 급속히 악화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도 핍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밥 푸 목사는 "지난 8월 22일에도 200여 명의 엔지 가정교회 교인이 평화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차이나에이드 대표 밥 푸 목사(왼쪽)가 중국의 박해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통역은 한국 순교자의소리 회장 폴리 현숙 박사(오른쪽)가 맡았다.

고용한 이들이 와서 교인 20여 명을 구타했고, 한 자매는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당했다"며 "이런 사건들은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조작된 거짓 증거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전락해 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우루무치에서는 5명의 기독교인이 집에서 비밀 성경공부를 하다가 체포돼 각각 '공공질서를 해쳤다'는 이유로 1-5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

이슈가 됐던 중국 정부의 심자가 철거에 대해서도 그는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5년 최소 2,000여 개의 심자가가 철거되고 30여 개의 교회가 파괴됐으며, 1,000여 명의 성도가 이를 막거나 항의하려다 정부로부터 강제 조치당했다"며 "저장성에 있는 90%에 달하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심자가가 강제 철거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심자가 철거에 저항한 목회자와 사모는 현재 10년 넘게 형을 받고 감금돼 있다. 저장성 기독교 위원회장으로 삼자교회의 지도자인 구요셴 목사도 공개적으로 심자가 철거 중단 캠페인을 한 후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문화혁명 후 이런 일들을 전혀 본 적 없다. 이것은 확실한 종교핍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밥 푸 목사는 "중국 정부가 전국적으로 기독교의 중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핍박은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최소 300곳 이상의 교회가 중국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부터 대학생들이 크

리스마스를 기념하지 못하게 하는 지시를 받았다"며 "또 주일날 아이들의 교회 출입을 막는 지시를 받았다. 교회 참석자와 헌금 보고 지시도 있었다. 이는 전에는 없던 일"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중국에서는 종교학교의 교장도 정부가 파견한 무신론자가 맡고 있다.

이 외 2015년 7월 9-10일에는 기독교 인권변호사 및 운동가 350여 명이 탄압을 받아 그중 수십 명이 체포되고, 몇 명은 형을 받고 고문을 당했으며 알 수 없는 약을 강제로 먹여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다. 거짓 재판에 회부된 후 행방이 묘연한 인권운동가도 있다. 정부는 심지어 그들 가족의 출국을 금지시키고 변호사 고용을 막거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강제로 해고시키게 했다.

이지희 기자



지난 2015년 7월 22일 저장성 원저우 룽완 지역의 쌍촌교회 여성 성도들이 정부의 심자가 철거에 항의하여 자신을 심자가에 묶었으나 공무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어내려지고 있다. ©차이나에이드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사장 : 오병익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Imitat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공동체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CANADA
 ♥등록 604-535-1800 admin.ictc@gmail.com

2017년 하반기 프로그램 안내

예수님의 선교학교

▶ 전방개척선교에 부름받은 선교헌신자를 위한
 Jesus School of Missions

일자 / 10월 23일(월)~27일(금) 4박 5일
 강사 / 김병선 선교사 (전 GP훈련원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ICM 디렉터, 스페인 선교사)
 등록 / 150불(교재, 숙식 포함, 침낭/타월 지참)



김병선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한국교회 선교사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함께 훈련 받아 팀으로 갈 때에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선교학교 수료 후, 1년 선교공동체 훈련과 여러 교회의 공동파송으로 전방 개척선교지에서 팀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Jesus School of Prayer

일자 / 11월 1일(수) ~ 3일(금) 2박 3일
 강사 / 이영환 목사 (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록 / 60불 (교재, 숙식포함, 침낭/타월 지참)



이영환 목사

이영환 목사님은 1980년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목회철학으로 대전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매일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약 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3-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유(所有)

다른 목회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에게 사도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밝히고 나서 문안과 권면으로 내용이 이어졌다. 그런데 유독 빌립보서만은 그러지 않았습니

다. 왜냐하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14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둘러 루디아라는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음화 되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어 빌립보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온갖 진리의 말씀이 하늘소망으로 이끌어갔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을 체험하며 믿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진리 안에 내리게 했었습니다.

그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100% 인정했고 그의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따랐던 교회입니다.

본문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한 것은 빌립보교회가 진리정통하고 성령충만하여 영적 성숙도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사역을 하다가 마케도나로 떠날 때 이 교회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기도로 뒷받침했고, 마케도나에 가서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함께 있거나 떠나 있거나 항상 한 가족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앞서고 소망이 넘쳤던 것이며 이것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했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면서 무슨 일든지 적극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교회 모든 성도들은 심령마다 성령을 받았습니

다. 영적성숙과 지옥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영적인 성과가 바로 빌립보교회 다니는 신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쓰심으로 나타나는 성과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까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7절과 같이 바울이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빌립보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소망적이었기 때문이며 그 교회가 하는 역할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과가 넘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금식기도까지 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달된 선교헌금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중단이 없게 사역을 도와왔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교회야말로 가르친 대로 믿고 자기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기도와 물질,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빌립보교회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손발이 잘 맞고 잘 통했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 말씀은 빌립보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그 사람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진실되고 허물없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한 증거(證據)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곳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 인생을 제멋대로 설계하고 노력했지만 끝내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빚갚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21살의 딸이 아버지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 딸은 은혜가 충만해서 영적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구원 얻고 천국갈 수만 있다면 사업이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약과 술로 점점 망가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과 심장이 피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의 인생은 아버지가

망가뜨려 놓았으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도록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딸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써가면서 아버지를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 딸이 전하는 하나님께 의지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생각으로 그 딸이 차를 몰고 아버지를 모시러 가던 중 그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이 딸의 심장과 간을 이 아버지에게 이식하기로 하고 그는 딸의 간과 심장을 이식받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어머니는 딸의 일기장을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딸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신앙고백들을 아버지가 읽게 되고 병원으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은 딸의 희생 덕분이고 내 영혼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덕분입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망해버린 사업도 인수합병으로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후 그는 딸과 예수님께 영육간의 빛진 인생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전도회를 결성하고 전도책자를 만들어 자신을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댓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합심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라

11절과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잘했다.

네가 한 일은 다 옳은 일이고 선한 열매로 가득하니 너의 믿음이 참으로 보배롭구나” 하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교회는 빌립보서 4:15~20에서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기초에 내가 마케도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스본이라는 부흥사는 “나는 숟가락 같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은 모래사 같은 것으로 퍼부어주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고 활용하기가 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여주시는 목적에 합당하게만 사용해야 선한 정치기의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 것같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말 오후 10시30분	주말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8,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적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6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빛,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단계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예반젤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 대화 지도자 7주 과정 (기독교일보 주최 2차)

등록비 : \$200 *수강을 마치신 분께 수료증 발급
문의 전화 : T(949) 864-9162
일시 : 9/16일~10/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5:00)
장소 : **얼바인 중앙장로교회** (담임 이기업 목사)
17702 Cowan, Irvine, CA 92614

▪ 대화 지도자 5주 과정 (기독교일보 주최 2차)

등록비 : \$200 *수강을 마치신 분께 수료증 발급
문의 전화 : T(949) 864-9162
일시 : 9/19일~10/17일 (매주 화요일 오전 9:30~오후 2:00)
장소 : **나성제일교회** (담임 김문수 목사)
213 S.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뉴욕교협, 허리케인 '하비' 피해입은 휴스턴 한인교회들 돕는다

허리케인 '하비'로 텍사스 휴스턴 지역에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뉴욕지구교회협의회가 29일 회원교회들에 공문을 발송, 휴스턴 지역 한인교회를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 모금에 대한 뉴욕교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뉴욕교협은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휴스턴 지역의 한인교회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요일 3:17, 요일 4:20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민교회로서 어려움을 당한 휴스턴 지역 한인이민교회를 돕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도리이며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따뜻한 사랑의 성금을 보내주시면 휴스턴 지역 한인교회들이 수해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줄로 믿는다"고 밝혔다.

수재의연금 모금은 오는 9월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교회는 C.K.C. 앞으로 발행한 체크를 뉴욕교협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이번 모금 진행은 사회분과위원장 김영환 목사(914-393-1450), 선교분과위원장 이재봉 목사(718-441-9651)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 맥크럼 교수

필그림스신학교 가을학기 개강예배 하나님의 말씀 절대 믿고 증거하는 학교 되길

필그림스신학교(조용근 총장)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기도회가 지난 2일(토) 열렸다.

이날 예배는 학교 임직원 및 학생,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명화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에틀랜타맨즈양상블(단장 이봉협)의 특송에 이어 격려사를 전한 김세희 목사는 "배움이 없으면 자람이 없다. 생명이 없다. 병아리가 알에서 커 가듯 배움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길 바란다. 시간과 돈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죄 많은 세상에 힘과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낙신 목사(잔스크리틱한교회 원로목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여러분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 좋은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젊을 때 공부함으로 준비하라. 큰 뜻을 품으라"고 격려했다.

말씀을 전한 마이크 맥크럼(Mike McCrum) 교수는 "얼마 전 개기일식을 통해 창조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반면 텍사스를 덮친 허리케인을 보라. 우리는

종종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맥크럼 교수는 "이 때 우리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길 길보다 높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 가신다"고 전했다.

이어진 합심기도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유명화 목사는 "학교가 참 많다. 그런데 왜 필그림스신학교가 필요한가. 많은 유명한 학교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가르침과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가르친다. 이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증거하는 학교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워졌다"며 참석자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예배는 한국과 미국, 학교를 위한 합심기도와 축도(박창환 목사)로 마무리 됐다.

윤수영 기자



웨어주립교도소 사역 모습

미션아가페, 주립교도소서 사랑 전해 재소자 200명에게 음식 제공하고 봉사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가 지난 25일 리치몬드힐성결교회(담임목사 이철호)와 함께 웨이크로스(Waycross) 소재 웨어주립교도소(Ware State Prison)를 방문해 재소자 200명에게 한인들의 사랑을 전했다.

웨어주립교도소는 애틀랜타에서 약 5시간 남쪽에 위치해 있다. 교도소 채플린 마이클 플린 목사(Michael Flynn)는 미션아가페와 함께 약 2년을 준비한 끝에 한인들의 교도소 방문을 허락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미션아가페 6명의 봉사자와 박동진 선교사(연합장로교회) 등 총

24명이 함께 했으며 음식과 찬양으로 재소자들을 섬겼다. 이에 교도소 측은 미션아가페와 리치몬드힐 교회가 매달 교도소를 방문해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교도소 측은 "한인들의 방문은 교도소를 개원한 199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찾아와 준 한인들의 사랑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션아가페와 리치몬드힐교회는 일년에 1~2회 가량 애틀랜타의 성도들도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영 기자

교회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끄는 사랑의교회, 이민가정을 지원하여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한현영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여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알리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383-2600, (213)383-2602 / laopendoor.org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민수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강양구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ew@hotmail.com

김중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공,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 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김성원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용철 담임목사

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김성수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태형 담임목사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식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참석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하이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감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종보기도모임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토렌스, 가디나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유종교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아지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 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bhs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화-토)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 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츄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은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수요일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곽력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재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LA 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9514 Franklin St., Northridge, CA 91328 348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 (818) 363-5887 Tel: (213) 232-3163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2부) 1:30p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잠예배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어(학)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성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예장 통합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정도출 · 임은빈 · 민경설 · 림형석 · 조병호 목사 등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제102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가 지역별로 진행된 가운데, 마지막 서울·수도권 지역 발표회가 6일 오후 서울 연동교회(담임 이성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선거에서 부총회장에는 정도출 목사(서울강동노회, 비전교회), 임은빈 목사(서울동남노회, 동부제일교회), 민경설 목사(서울서남노회, 광진교회), 림형석 목사(안양노회, 평촌교회), 조병호 목사(서울강남노회, 하이기쁨교회, 기호순) 등 무려 5명이 출마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이현범 장로(광주노회, 유덕교회)가 단독 입후보했다. 김동엽 목사(경경총회장)가 설교한 예배와 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인사 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배준일 목사(양산범어교회) 사회로 소견발표회가 진행됐다.

먼저 정도출 목사는 "총회장이 되면 '나부터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잃어버린 총회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산하 재산을 잘 지켜내겠다"며 "교회에서 안식년을 얻어 총회에 1년간 상근하면서 반드시 헌안들을 해결하고, 헌법과 원칙을 존중하여 제 이름처럼 정도로 나아가 건강한 총회, 일류 총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연금 문제는 가임자인 제가 해결해 모든 목사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재판 제도를 개혁해 법리부서원들을 집중 교육하고 교단 내 변호인을 양성하며, 사회 법정에 나가 지 않도록 각서를 받았다. 검색과 판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예측 가능한 재판 제도를 만들고 누구나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임은빈 목사는 "교회 건축이 60% 진행 중이다.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후배 목사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총대 여러분이 제 손을 잡아 주시면 외부 컨설팅을 맡겨 총회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개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①신뢰받는 재판국 ②지속 성장하는 연금재단 ③이슬람 동성애 이단 말씀대로 대처 ④총대들의 존재감 회복 등 4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재판국에 대해 "현재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으며 법적 효력이 부족한 상태이나, 신뢰받는 재판국을 만들겠다"며 "노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들을 특별 공천해 지도력을 갖추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일반 법정에서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경설 목사는 "폐결핵 3기로 죽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예수님 믿고 고침 받은 사람으로써, '예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사역해 왔다"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모두 부흥하는 길을 열겠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복음 총회로 희망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회 기구를 새롭게 혁신해 21세기 선진 총회를 만들겠다. 재심 재판 제도를 없애고 화해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연금 제도를 확실히 해 선진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겠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단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여성 총대 활동대와 목사·장로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림형석 목사는 "목회지원본부를 설립해 약한 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 미자립교회에 재정뿐 아니라 목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전국적인 기도와 회개 운동을 일으키겠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심 재판을 확립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 누구에게도 정치적으로 빚진 일이 없으므로, 순수하고 깨끗한 정치와 공정한 행정으로 문제들을 풀어 나가겠다. 전문가들과 함께 연금을 지켜내겠다.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에도 앞장서고, '성평등 개헌'을 추진중인 정부에 쓴소리도 하겠다"고 했다.

조병호 목사는 "총회 선거가 선교의 장이 아닌 정치 선전의 장이라면 아름다울까? 저는 오늘까지 모든 선거규정을 기쁘게 지켰다. 선거가 흔들려선 안 된다. 사소한 지시사항 하나 제대로 준수하지 못

하고 당선된 총회장이 보낸 공문을 교회에서 존중하겠는가"라며 "선거법을 지키기 때 쫓아 있는 지도자가 선출된다. 총회 선거법이 더 엄격하게 모범을 보여 세상 선관위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①현금봉투는 선거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②선거사무실은 없다 ③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등 3가지를 앞으로 끝까지 실천하겠다"며 "선거법과 총회법을 준수하려는 제게 기회를 달라. 선거법 100% 지켜서 당선되는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현범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부족함이 많은 자이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해내는 근성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의 믿음이 있다. 나라도 교회도 어렵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장로부총회장이 무슨 일을 하겠나' 하는 시각을 없애고 일이 없으면 찾아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성장동력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금지와 사명감을 잃지 않고 섬김을 통해 평안한 노회와 총회, 교회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목사와 장로의 협력 관계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사랑과 용서보다 갈등과 불신 속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총회장님을 도와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고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총회 내에 청산해야 할 적폐는?
이후에는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총회 내에 개혁해야 할 부분, 청산해야 할 구태나 구습, 적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정도출 목사는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법을 정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 우리 스승이 자주 무너뜨리니 제2, 제3, 제4로 번지지 않는다. 모든 일을 헌법대로 해야 한다"며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 제도가 감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빈 목사는 "이기주의가 큰 문제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으면 절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 총회를 위해 양보도 하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재판국 문제와 기구개혁 문제도 있고, 현재 부총회장 선거 방식도 재정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경설 목사는 "사람과 제도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 영적 문제를 먼저 거론하자면, 신분주의 대신 인본주의만 남은 것이다. 영성도, 복음의 열정도 약화됐다. 기도의 사람이 부족하다"며 "조창기에는 교회 분장이 있을 경우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면 다 수긍하고 순종했지만, 그런 영성 있는 분들이 안 계신다. 6-7십에 이르는 재판 제도도 바꿔서 약한 자들이 어려워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림형석 목사는 "선거 문화가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는데, 막바지가 되니 여러 네거티브가 들린다"며 "지난 몇 년간 많이 줄어들었지만, 금권선거도 더욱 청산해야 한다. 후원해 달라는 곳이 너무 많고 약한 교회도 너무 많아서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상비부서 등은 제비뽑기 등으로 제도를 정비하면 후유증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호 목사는 "성경 한 구절 구절이 참 넓고 깊고 놀란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가 있는데, 3대가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됐음에도 이 스토리를 모른다. 이것만큼 구태이자 적폐가 어디 있는나"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전체 이야기를 쉽게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범 장로는 "재판을 하지만 승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누구든 불복하다 보니, 사건 하나가 2-3개로 불어났다"며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반면, 끝나기도 전에 항의전화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장 시급한 정책과 해법은 무엇인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은?', '저출산의 대안은?' 등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이 실시됐다. 이대웅 기자



존 맥아더 목사 ©유튜브 영상 캡처

美 백인우월주의 폭력사태는 기독교 가치 붕괴 때문

존 맥아더 목사 해석... "이제 시작" 경고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이자 작가인 존 맥아더 목사가 지난달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일어났던 백인우월주의 폭력사태에 대해 "미국사회의 근간인 기독교 가족 가치가 붕괴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부도덕성의 현상"이라고 했다.

미국 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 '케이아메리칸포스트'는 최근 맥아더 목사가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고 2일 보도했다.

맥아더 목사는 또 "이렇게 된 데는 미국 사회에서 양심, 가족이 붕괴되고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킨 결과"라며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그의 이 대답을 소개한 비디오는 현재 4백만 명 이상이 조회하는 등 미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하며 아래와 같이 해당 답변의 내용을 정리해 소개했다.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분노적이다. 샬럿스빌 사건은 타락한 인간성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건은 분노에 대한 정당화다. 이것은 노예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화나고 적대적이고 자기답대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내세운 구실이다.

누구도 백인우월주의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다 여기에 이르렀나?

인간의 마음은 악하다.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셨다. 첫번째는 개인

안에 있다. 양심이다. 양심은 도덕에 반응한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왜곡되고 비정상적이고 뒤집어진 도덕법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양심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양심은 이것은 틀린 것이고 저것은 옳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인식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양심은 마음에 건전한 도덕법이 새겨져 있을 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도덕성의 핵심 내용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내가 전부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아빠와 엄마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도록 했다. 그 마음의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가족이 붕괴되고 파괴되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훈계가 되어지지 않아 무엇이 옳고 적합한 행동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세째로 공권력이다. 경찰은 그 마음의 악을 제압할 검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경찰들을 오랫동안 공격해서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 존경함이 사회에서 약해지면서 모든 악들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샬럿스빌 사건은 인종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누구도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악이 드러난 것이다. 양심과 가족이 붕괴되고 공권력에 대한 계속되는 공격의 결과다. 준비하라.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김진영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8: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 매일 4배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P-ki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한글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예)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 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봉사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 가르친 美 차터스쿨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 시간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성전환주의)을 가르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21일(이하 현지시간) 학부모들은 락클린아카데미게이트웨이(Rocklin Academy Gateway) 학교 이사회에 참석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 학부모는 "내 딸이 흐느껴 울면서 집에 왔다. 딸 아이는 자신이 남자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는 "딸 아이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책이 아닌 부모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우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초에 발생했다. 당시 차터스쿨의 킨더 교사들은 트랜스젠더리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2개의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하나는 '아이엠재즈'라는 책으로, 성전환자이자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인물인 재즈 제닝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다른 책은 '빨강' 딱지가 붙은 파랑 크레파스의 이야기를 다룬 '빨강 : 한 크레파스의 이야기'였다.

유치원 학생들에 따르면(학교 측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려주기를 꺼려했다), 수업 중 한 남학생은 여학생의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교사는 "이 학생은 남자 아이의 몸에 여자 아이의 뇌를 가졌다"고 말했다고, 더 나아가 학생들은 남학생에게 여자 아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어야 했다.

이같은 수업이 논란이 되자, 학교 이사회는 지난 7월 31 학부모들을 위한 특별모임을 갖고 대화에 나섰다. 이날 학교 측 변호사는 학부모들에게 "주 법에 따르면,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과 관련된 토론(수업)은 생식기관과 성기능을 가르치는 성교육과 달리, 학교 측에서 이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또 학부모들이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과 관련된 학급 토론에서 학생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업에 동의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자기의 몸에 대해 절대적으로 편견을 갖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내 아이는 수업을 듣고 나서, 이를 어떤 악의적인 것과 연관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학전문가들은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 미셸 크레델라 회장은 "어린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남녀 구분이 없는 이야기 책을 배우고, 반대 성별의 옷을 입혀서 보여주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전했다.

8월 21일 이사회에서, 학교 측은 성 정체성 교육에 관한 주제를 오는 9월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그 때까지 이 이슈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강혜진 기자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PASTOR JUSTIN KI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HAROLD KI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PASTOR JAMES KWAK**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PASTOR RONNIE PARK**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AM KOH**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PASTOR STEVE CHANG**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ACADEMIC YEAR 2017~2018년도



온누리 장학생 모집공고

신청기간: 6월 1일~10월 1일 제출마감: 10월 1일
신청접수 e-mail: ancscfug@gmail.com

자격 및 장학금 종류

1. Korean American Christian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서 학업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2. General Academic Scholarship
 - 2year Junior College Scholarship
 - 4year College/University Scholarship
 - Graduate School Scholarship
3. 해외 한인선교사 자녀 장학금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내 대학교 학업 수행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ancscfug@gmail.com을 통해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자격사항 및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의사항

1. online 접수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신청서, 또는 미비된 신청서는 선발과정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4. ANC 온누리 장학금은 수혜자의 특권이지 신청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어떠한 이익제기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김태형)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T: 818.834.7000 / www.anconnuri.com

칭찬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기질적으로 칭찬을 받으면 수줍어합니다. 때로는 조금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을 때, 왜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지 제 스스로가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증은 기질을 공부하는 중에 풀렸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우울질의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수줍어합니다. 어색해합니다. 조금 심할 때는 의심까지 합니다. 특별히 칭찬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기질에 따라 사람마다 칭찬에 대한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기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서로의 기질이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저의 기질은 우울질과 답즙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우울질이 강합니다. 그런 까닭에 칭찬 듣는 것을 조금 어색해 하고 수줍어합니다. 칭찬보다는 위로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칭찬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된 칭찬과 구체적인 칭찬을 들을 때는 힘이 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은 칭찬에 조금 인색하다는 생각입니다.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잘 하고 싶은데 칭찬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칭찬이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내어 말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이 잘하는 것을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든 시작은 잘하지만 지속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끈기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탁월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요?

첫째, 칭찬을 받을 때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기계의 기름을 쳐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속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둘째,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술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깨달을수록 지속하게 됩니다. 의미라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칭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삽니다. 칭찬이 중요하긴 하지만 칭찬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셋째,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경지를 넘어 즐거워해야 합니다. 진지한 것만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즐거워할 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영혼의 산소입니다. 칭찬은 따뜻한 언어입니다. 반면에 비난은 차가운 언어입니다. 비난은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매연과 같습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칭찬은 씨앗과 같습니다. 칭찬하면 칭찬을 거두게 됩니다. 칭찬은 매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선물합시다.

피해액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덮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학교도 직장도 문을 닫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피해액도 2005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다친 카트리나와 2012년 미 동부를 강타한 샌디의 피해액을 합친 규모로 약 1600억 불의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물 폭탄 같은 폭우로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에 걸쳐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그 피해는 단 순히 재산피해로만 측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많은 교회도 물난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 오는 피해는 경제적인 손해일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아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은 지적 손해일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손해는 어떻게 계산

할까요? 그 피해를 환산하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를 닫는 것은 학생들이 좋아서 방학한 기분일 것입니다. 직장에 잠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돈은 못 벌지 몰라도 휴가를 받은 기분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재산적 피해는 그크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게 오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피해는 어떨까요? 아니, 어떤 이는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을 피해로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학교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주

일에배를 별 생각없이 건너 뛰신다면, 우리가 계산하는 피해는 직장과 학교에 못 갈 때 나타나는 물리적인 피해만 계산할 것입니다. 보통 날에 학교를 결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배드리는 주일은 손해 본다는 생각도 없이 바쁘다는 핑계로 찾혀 버릴 때가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동부에서 목회할 때 눈보라 치는 주일에도 예배 시간을 오후로 늦춰본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를 폐교할 수준이 아니면 학교에 가듯이 적어도 예배를 두 세사람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예배당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다친 허리케인은 모든 교통과 시설을 마비시켜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방법이 없었고, 예배당도 물난리가 나서 모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못 드린 것은 회사를 갈 수 없는 것보다도 학교 문을 닫게 된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요행이 아닙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책 중의 하나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입니다. 한 때는 3초마다 한 권씩 팔린다고 할 정도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그러나 그 책이 것처럼 성공적인 판매를 기록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책의 집필가 중 한 사람인 잭 캔필드가 밝힌 바에 의하면, 먼저 미국내 가장 저명한 저술가들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2년 간 하루도 빠짐없이 미 전역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들을 찾아가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내의 평론가들과 잠재력을 가진 독자들에게 5권씩 책을 우송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촉발하는 것이 여론 조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모든 신문과

잡지에는 그 책의 내용을 무료로 발췌해 신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판매하는 에이전트들에게는 판매량에 따르는 넉넉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5천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행운은 없습니다. 행운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뒤에 각고의 노력과 헌신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

생을 요행을 따라 너무 쉽게 살려고 하면 안됩니다. 합당한 노력을 경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헌신과 투자가 있을 때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근본 출발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몫의 헌신과 댓가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때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의 삶은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생명수 한의원

Living Water Acupuncture

전문 진료 과목

한방 신경정신과

불면, 불안(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회병

과잉행동장애(ADHD)

조현병(정신분열증)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배상석 원장
Joshua Bae L.Ac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졸업
한방 임상 30년
동지침법 창안자

Tel. 714-761-5454

520 N. Brookhurst St. #208, Anaheim, CA 92801



한국성경신학회 창립 20주년 제40차 성경신학회 정기논문 발표

“언약 교리가 성경 신학의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

한국성경신학회(회장 박형용 박사)가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아 해외석학 초청강연을 21일 서울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가졌다. 제40차 성경신학회 정기논문 발표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1세기 성경신학의 방향: 게할더스 보스를 기념하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부 순서는 예배로 준비됐고 2부 순서는 허주 박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사회 아래 폴 하우스(샘포드대학교 신약신학) 박사와 스캇 헤프먼(세인트앤드류대학교 신약신학) 박사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논문의 제목은 각각 <여호와와 “새 창조의 종들”>: 아시아와 바울서신 탐구(Yahweh’s New Creation Servants: Explorations in Isaiah and Paul Introduction), <언약 교리와 하나님의 영광> (The Doctrine of the Covenant in Reformed Theology) and the Question of the Glory of God: The Contribution of Geerhardus Vos)였다.

첫 번째 논문 발표를 맡은 폴 하우스 박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통일돼 있으면서도 다면적인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경이 실제로 어떻게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주장”이라며 논문의 요지인 ‘전체 성경에 대한 성경신학(Whole Bible Biblical Theology)’을 설명했다.

먼저 폴 하우스 박사는 ‘전체 성경에 대한 성경신학’의 방법론을 언급했다. 첫째는 ‘성경은 정합성을 지니시고 선하시고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통일성을 가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구약과 신약을 대립시키거나 선지자들을 대조시키거나, 사도를 경쟁시키거나 하지 않는 것’, 셋째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그저 개요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성경신학적이고 하기 어렵기에, 될 수 있는 한 정경 전체를 포괄하려 해야 한다는 것’, 넷째는 ‘중국어 역사적 정경적 형태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그 각 책과 역사적 정황을 모두 다 살펴서 이해하려는 것’, 다섯째는 ‘본문의 자료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주제들을 추적하는 등 전체를 조직화하는 중심 주제들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도 여전히 유용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구약 학자들과 신약 학자들이 조화롭게 작업하는 것이 유용하며,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자들과도 조화롭게 작업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

긴다는 것’이다. 이어 폴 하우스 박사는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들: 관심점들의 원천과 탐구”라는 주제로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새로운 피조물(a new creation)’이 아시아에서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과 “아시아의 정경적 신학적 이상 ‘새로운 창조의 신학’ 기획의 (배경이 되는) 강물들”이라는 주제를 전했다.

폴 하우스 박사는 크게 ‘창조’와 ‘새 창조’, ‘하나님-여호와와 종-종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루며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이라 표현하는 것과 회심(conversion)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용어로 묘사하는 점(고후4:6, 창1:3, 행26:12-18), 비록 바울 자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 영적 물리적 투쟁을 하고 있는 점(고후4:7-12), 인종과 배경에 관계 없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변화된 각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일컫는 점(갈6:15, 고후5:16-18), 아시아가 언급한 여호와와 종들, 새로운 종들(사65:1-6; 66:1-14; 66:19-23)을 비롯해, 바울은 예수님의 종들이 바로 여호와와 종들이고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음을 주장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폴 하우스 박사는 “전체 성경의 성경신학은 역사와 창조와 새로운 창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심을 찾아 제시해볼까 노력한다. 전체 성경신학은 종의 학문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높이기 위해, 성경적 사유·설교·학문·윤리에 온전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존재한다. ‘전체 성경의 성경신학’은 성경을 읽고 사유하는 통일성 있는 방식들을 제공한다”며 “이 신학을 통해 사유하고 글을 쓰고 사역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재 요구를 훨씬 넘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두번째 강연을 맡은 스캇 헤프먼 박사(세인트앤드류대학교 신약신학)는 개혁주의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게할더스 보스(1862-1949)에 대해 언급하며 ‘언약 교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논문의 주 핵심이 되는 것은 게할더스 보스가 1891년(29세)에 교장으로 취임하며 발표했던 방법론적인 논문 <개혁 신학 안에서의 언약 교리(The Doctrine of the Covenant in Reformed Theology)>였



Q&A가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이승구 박사, 폴 하우스 박사, 스캇 헤프먼 박사, 김의창 박사.

다. 스캇 헤프먼 박사는 이 논문이 “행위언약(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관계를 맺은 방식)으로, 아담은 아직 확정적이고 영구적인 의로운 상태를 얻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공생애 가운데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를 얻게 됨)과 구속언약(삼위께서 행위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언약적 동의) 그리고 은혜언약(그리스도께서 구속언약 가운데서 행위언약을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는 언약을 구분하는 ‘언약 교리’가 성경 신학의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가 되고 그것은 특별히 ‘개혁 교리’를 말하고 있다”며 “보스에게 있어서 ‘개혁주의자’라는 것은 ‘언약 신학자’였다”고 했다.

이어 게할더스 보스의 언약적 교리를 루터파와 비교하며 6가지로 요약했다. 다음은 스캇 헤프먼 박사가 요약한 ‘보스의 언약 신학의 여섯 개의 교리적 기둥들’.

1.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따라서 개혁 신학을 입증한다.
2. 행위 언약은 타락 이전에 시작되었고 따라서 창조의 유예적인 상태(provisional status of creation)를 타나낸다.
3. 하나님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법적이기(judicial)때문에 그 계명의 방식으로 행위와 보상을 우선시한다.
4. 행위 언약은 영원하고 따라서 구속 언약을 결정한다.
5. 은혜 언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서 행위 언약이 구속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전제한다.
6. 은혜 언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따라서 율법의 제 3용도를 요

구한다. 이와 함께 스캇 헤프먼 박사는 보스의 입장에 입각해 ‘하나님과 인간의 출발점 차이’, ‘이신칭의’ 등에 있어 여러모로 대조됐던 루터파와 개혁주의의 입장을 언급했고, “(보스의) 논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언약의 중요성”이라며 “보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교리가 나오고 또한 모든 교리가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찬송을 하는 것인데 이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보스의 언약에 대한 관점에 있는 이러한 확신들이, 그것이 가지는 송영적(doxological)인 중요성이 성경 신학을 뒷받침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보스의 ‘세 가지 인신론적 원리’와 관련해 세 가지의 성경 신학적 질문을 제기하며 일부 의견에 있어 보스가 아니라 루터파 주장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다음은 그 세 가지 질문. “보스의 첫 번째 인신론적 원리(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선행된 사역에 의존하여야 한다)와 관련해 에덴동산에서 타락 전과 이후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격과 기능 사이에 성경적으로 대조점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보스의 두 번째 인신론적 원리(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와 관련해 다른 누군가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의로 받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 아담과 그리스도는 행위로 살고 택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성경적인가?”, “보스의 세 번째 인신론적 원리(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 계시는 무의식적으로나 수동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의식

적인 삶의 이해와 의지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적극적인 외적 표현으로 되어야 한다)에 따라 믿음을 마음과 연관 짓고, 순종의 행위와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마지막으로 스캇 헤프먼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조화를 이루는 보스의 언약 교리 해설과 교회론적인 적용은 그의 가장 큰 기여라고 생각한다”며 “성경신학은 미래와 연관해, 보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언약’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보스의 개혁주의 신학의 언약 이해에 대한 나의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대답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과 대답들이 보스가 주장한 송영적인 전체들과 인신론적인 원리들에 의해 촉구됐고 또한 평가되어야 할 단점에서 보스가 기여한 바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진보주의 적 학자뿐 아니라 복음주의 학자들도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각각의 연구들이 파편화 되어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논문을 통해 여러 주제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봐야 하는지, 신약이 구약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보았다. 통틀어 봐야 한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성경신학회는 우리나라와 세계 교회에 건설한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성경의 주해 중심의 신학사상을 수립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성경신학자들의 연구 업적을 재조명하고자 1997년 시작됐다.

김신의 기자

ANC 세미나 공식 후원업체

GSI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무료 설치”

GSI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블랙박스과 함께 안심 운전하세요

1



Aitz SMVB-6100

- 컴팩트 실속형 (주차감시 모드 시 전/후방 모션 감지 및 충격감지를 동시에 지원)

\$150 전.후방
\$190 전.후방

2



Aitz ROAD

- 3.5인치 터치스크린
- 포맷프리, 고온 차단 기능
- 128GB까지 인식

\$220 전.후방

3



Aitz ALPHA

- 4.0인치 FHD의 터치스크린
- 첨단 안전운전자원 시스템(ADAS)탑재
- 포맷프리
-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최적의 탑재위치

\$320 전.후방

4



Aitz RC-100

- 후진기어시 자동으로 주차영상을 보여주는 콤보형
- 4.0인치 터치스크린

\$320 전.후방

5



eCell e-FOCUS

- 본체 분리 2채널 초소형 카메라
- 스마트폰 연동기능 (모바일 앱 통해 녹화영상, 실시간영상, 충격영상 확인가능)
- 포맷프리
- 앱 무료설치 및 업데이트
- 스트리트 피킹도 안심하세요

\$320 전.후방

* 그외 상업용 차량 및 모터 사이클용 블랙박스 판매

전시 및 Warehouse
GSI Systems, Inc.
860 E. La Habra Blvd, #220A
La Habra, CA 90631

GSI 블랙박스 판매/설치 연락처
LA & OC : T (408)966-8595, (714)349-8131
GSI SYSTEMS INC. - DASHBOARD CAMERA COMPANY
유럽차 (Benz, BMW, Audi 및 특수차량)는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upon
기독교일보 독자들만을 위한 혜택!
이 쿠폰을 지참하신 분들에게는
Micro SD Card 32GB 무료 증정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 의사 Zo'e 조애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CD PRINTING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 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월 \$10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주님과 함께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일반캘린더와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공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미디어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캘린더 그래픽 특성질적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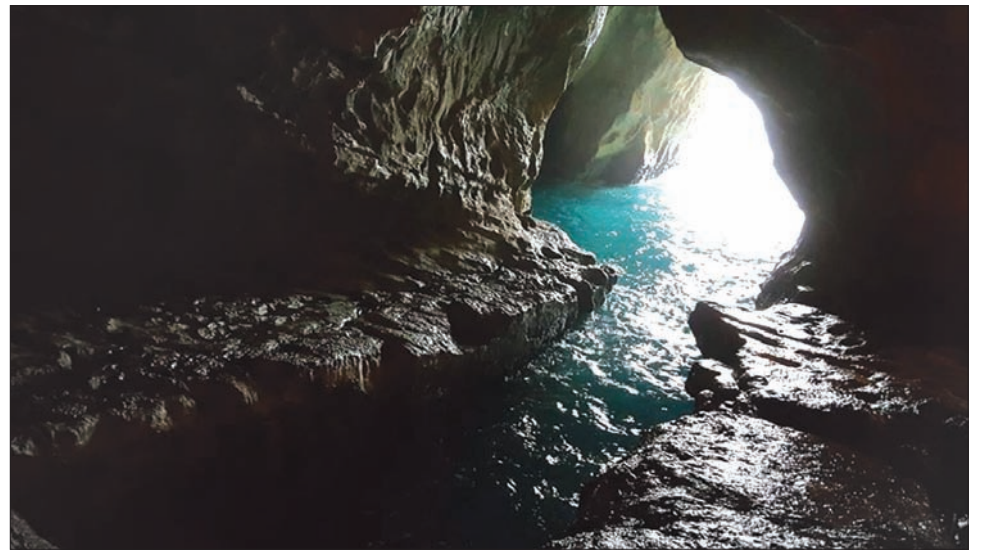
주님과 함께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린더와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공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미디어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로쉬 하 니크라의 해식 동굴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1)

이스라엘의 10대 명소- 로쉬 하 니크라

이스라엘의 지중해에 면한 북쪽 레바논과의 국경

지중해 해안도시 아쉬켈론에서 시작된 4번 도로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하는 종점이 바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이 있는 로쉬 하 니크라(Rosh Ha-nikra)이다. 약 170km를 올라온 이 도로는 로쉬 하 니크라에서 끊어졌지만 언젠가는 다시 열려 지중해 무역의 황금시대를 구가하게 되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로쉬 하 니크라’는 두로의 사다리라는 애칭을 가진 큰 산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지리적인 경계가 된다. 고대에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출발한 대상이 이스라엘을 거쳐 레바논과 시리아를 거쳐 터키의 이스탄불까지 가는 중요한 해안선 무역로였다. 이집트와 아프리카 문화가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아시아의 문화와 문물로 아프리카로 향하는 출발지로서의 독특한 지역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 이스라엘 정착시대에는 주변 산의 이름을 따서 “사다다리의 머리(The

Ladder of Tire)”라는 뜻의 마을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로부터 제국의 황제들은 지중해 해안 길을 따라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길을 만들려고 시도했다. BC323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점령되었고 군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큰 산이 가로막은 이곳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였다. 그때에 터널이 건설됐고 고대로부터 많은 군대와 대상들이 이 터널을 통과하였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아랍, 십자군의 군인들과 후대에는 순례객들이 왕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바닷가에 터널을 뚫어준 안전한 도로를 통해 통행하였다.

이후 여러 시대를 거쳐 1918년 영국이 위임통치 하던 시절에 이 터널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시 기차길을 통하여 카이로와 이스탄불을 기차길로 연결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철길 토목공사는 하이파에서 베이루트를 연결하는 중요한 수송로가 되었다. 영국군은 이곳에 경찰서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제하였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을 만들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 도로를 폭파하여 폐쇄함으로 이곳은 레바논과의 국경으로 고착되었다. 그동안 하이파와 레바논을 왕래하던 기차는 끊어지고 말았다.

지금도 로쉬 하 니크라에 가면 끊어진 철길을 볼 수 있다. 언젠가 평화의 시대가 되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 이 철길을 통하여 두로와 시돈으로 그리고 베이루트를 거쳐 다메섹으로 가고, 터키로 가서 대한민국까지 철길로 갈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로쉬 하 니크라의 아름다운 해식 동굴

지중해 바다와 절벽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로쉬 하 니크라는 오랜 기간 바다의 파도가 약 200m의 동굴을 만들었고, 또한 아주 특별한 파도와 바람이 코끼리 머리 모양의 절벽 또한 만들었다.

이곳 로쉬 하 니크라에서 케이블 카를 타고 약 70m 정도 내려가면 하이라이트 전경을 볼 수 있으니 짧은 거리지만 꼭 사진을 찍으시기를 당부 드리고, 로쉬 하 니크라를 소개하는 약 15분 정도의 무료 영상, 약 200m 정도의 동굴을 걷는 코스 그리고 1918년 이후 영국이 약 40년간 이스라엘을 위임 통치하던 시절 이곳을 통과했던 오리엔탈 특급 열차가 지나갔던 터널도 꼭 챙기시기를 추천한다.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스라엘선교회

로쉬 하 니크라에서 북쪽으로 40km 위에 성경에 언급된 두로 지방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이 있어 바로 갈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흰 초크의 바다동굴은 햇살에 눈이 부실 정도의 흰색과 눈이 시리도록 푸른 에머랄드 빛 지중해와의 대비는 아름다움의 극이다. 가파른 절벽으로 인해 케이블카가 생기기까지 일부 수중 다이버들만이 즐겼던 바다 동굴의 세계를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다.

로쉬 하 니크라, 이스라엘 10대 명소

“로쉬”는 히브리어로 “머리”라는 뜻이고 “니크라”는 갈라진 틈 곧 터널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가면 바로 이 니크라를 볼 수 있다. 약 200m 되는 이 터널은 해안선에 있는 바위를 뚫어 만든 것으로 이 터널을 기차로 통행하였다. 그리고 400m 쯤 되는 터널이 해안선으로 자연적으로 뚫려있는 것이 있는데 이 터널로 들어가면 해안으로 부셔져 들어오는 파도와 넘실대는 푸른 물결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다. 약간은 신비로운 동굴 같은 이 터널 안에서 자연의 위대함을 맛보며 깊은 물결과 나를 하나가 되어 볼 수 있는 장관이 연출된다. 1948년 이스라엘에 의해 폭파된 터널 도로는 이제 한쪽만이 1968년 새롭게 단장되어 국경 공원이 되었다.

로쉬 하 니크라에는 케이블카가 있어서 15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위쪽 도로에서 아래쪽 터널과 바닷가를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이 케이블은 겨울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여름에는 오후 6시까지 운행된다. 7월에서 8월은 오후 11시까지 이곳이 개장되어 여름날의 아름다운 해변의 모습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은 또한 작은 만 형태의 협곡이 이루어낸 절경이 있다. 약 70m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 협곡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생겼고 곳곳에 있는 자연 동굴들로 물이 들어와서 신비스러운 바닷물과 협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바다와 바위와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일간지 ‘하 아렛츠’에서 발표한 이스라엘의 10대 명소에 들어갈 만큼 지중해안과 자연 침식으로 생긴 해변 동굴 등이 참 아름답다.

한국인들이 절대 가보고 싶고 많이 찾아가는 3대 장소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과 사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지였던 갈릴리 주변이라면 절대 가지 않는 곳 3곳은 악고와 하이파에 있는 바하이 사원, 그리고 이곳 로쉬 하 니크라라고 한다. 하지만 한번 와보면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하얀 해안 절벽과 그리고 동굴 바닷물의 깊숙한 침입 등은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절경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름다운 절경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두의 생각보다 안전하다. 특히 국경지대의 고요함은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의아할 정도이다. 이곳도 레바논과의 철책으로 이루어진 국경이지만 참 평화롭다. 시아파가 주도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상당히 강경하지만 이곳으로 로켓탄을 날리지는 않는다. 언젠가 이스라엘 병사의 죽은 시신이 관과 함께 이곳으로 와서 레바논 헤즈볼라 포로병사와 교환된 일이 있었기도 하다.

(계속)



로쉬 하 니크라의 터널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희망은 에어

최충희 | 흥성사 | 220쪽

미주 한 기독교 방송에서 2013년부터 4년간 시즌제로 방송된 칼럼의 일부를 엮었다. 라디오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접한 청취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기독교로 남아 더 많은 이에게 퍼지기를 원했다고 한다. 책에 담긴 사연들이 많은 이의 마음을 울린 이유는,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땅을 꼭꼭 밟으며 담대히 걸어가라 격려하기 때문이다.



삼키는 칼 1, 2

이중세 | 마음지기 | 408 · 392쪽

성경과 고고학적 연구를 뼈대로 삼아, 허구를 살포 만든 소설 작품이다. '다윗'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골리앗,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등을 소설 장르로 재조명하고 있다. 희곡 작가이며 탁월한 이야기꾼인 저자는 특유의 필력으로 이를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사울의 첩 리스바와 사울의 삼촌 이브넬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기독교 문학과 행복한 글쓰기

김중희 | 바이북스 | 212쪽

기독교와 문학은 서로 배타적이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종교와 허구를 다루는 문학은 근원부터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적 깊이와 문학적 완성도를 가진 문학 작품들도 적지 않은데, 기독교와 문학이 모두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15개 유명 작품을 분석하면서 신앙과 문학에 대한 모두의 눈을 뜨게 해 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A. W. 토저 | 이음북 역 | 규장 | 240쪽

교회의 약점들을 지적하고 타협을 꾸짖으며, 경고하고 권면한다.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이다.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늘 보여주기 때문이다. 파도같이 밀려오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서 귀를 기울여 보라.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저자의 24번째 시리즈.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존 파이퍼, 자연적 행위 통한 '초자연적' 성경 읽기 제시

존 파이퍼는 톰 라이트와 <칭의논쟁>을 펼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름이다. 존 파이퍼는 미국 칼빈주의 계열 침례교 목사이고,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베들레헴교회 목사이다.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는 존 파이퍼의 「Reading the Bible Supernaturality(2017)」을 신속하게 두란노에서 번역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의식과 지식 수준이 성장해, 해외 연구자들의 저술을 거의 동시에 번역하는 수준에 이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 번역 출판이 기쁘다.

존 파이퍼는 성경 읽는 방법을 상당히 방대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총체는 'Supernaturality(초자연적)'이

다. 필자는 이성적(Rationalism, 합리주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거부한 Supernaturality로 이해했다.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했고, 27장으로 구성했다. 1부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부는 '초자연적 읽기, 믿음의 기적을 만든다', 3부는 '자연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이다.

파이퍼는 성경 읽기의 목적(예배지향)을 제시하며, 성경 읽는 과정과 유익을 제시한다. 그리스도의 비밀, 구약의 영광 등을 알아가며, 다양한 영적 유익, 영혼과 삶의 변화를 기대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존 파이퍼는 성경을 읽을 때 실패한 유형으로 '바리새적인 것'을 제시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
존 파이퍼 | 흥성사 역
두란노 | 582쪽

하고,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방안을 제시한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유익을 얻을 수 없다. 파이퍼가 제시하는 영적 유익을 얻는 방안을 명료하

게 알 수 있다.

파이퍼는 자연적 행위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가 된다고 제시한다. 역발상(逆發想)이다. 성령이 일하심은 초자연적 성경 읽기이다. 그러나 파이퍼가 말하는 자연은 인간에게 있는 성품, 겸손, 기도, 훈련, 텍스트 해독 능력 등이다. 상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성경 해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들이다. '훈련은 반복이고,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자기 몸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파이퍼가 제시하는 성경 읽기는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사역자가 연구와 사역에서 정리한 메뉴얼이다. 그 자체에 큰 가치가 있고,

그 체득한 지식을 탐구한다면 성도의 교제의 유익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신칭의 교리를 사모하는 성도에게 파이퍼는 큰 위로를 주는 목사이다. 선명하게 성경을 연구하려는 성도에게 파이퍼의 제안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파이퍼는 성경 연구를 위한 제안으로 북쪽에서 www.biblearc.com을 소개했다. 누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게시할 수 있다. 파이퍼의 성경 연구 과정을 엿볼 수 있고, 많은 성경의 제자들의 성경 연구 훈련을 볼 수 있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설교자를 위한 필독서!

설교를 위한 생생하고도 보물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라

한국인 최초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효성교회 박영재 목사의 위로의 선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깨닫고 울고 감동하며 위로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전달된 책!
상처난 내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책!

가수 EXID의 솔지, "책을 읽는 시간 내내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처를 진주로 바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초등학교 이석훈 교사,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일신여중 김중서 교사, "영혼이 맑아졌어요."
경인교대 김재운 교수,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금천교회 김진홍 목사,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주부 진선미 씨, "책이 쉽고 재미있어 단숨에 읽었어요"
고3 한수림, "지쳐 있었던 계이 이 책은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네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영재 지음 / 356면 / 15,000원

추격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참 많았던 필자는 자신의 궁금증이 '성경의 전체 주제와 상관없는 호기심은 아닌가?' 생각했었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궁금증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목사들이 읽어도 좋고 평신도가 읽어도 좋을 만큼 논리적으로 잘 쓴 책" 현 평양제일노회회장, 칼빈신학교 교수 서문강

신현아 지음 / 40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쿨란, 쿨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정길 6 ☎ 747-1004

남성의 7가지 모드와 여성의 7가지 무드 남여의 '다름'에 집중하라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됨을 위하여

좋은 남편이 된다는 것, 좋은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처음 만나 불꽃 같은 시간을 지나며 서로가 좋아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이끌었던 힘이 사라지고 나면, 그 뒤에는 서로의 장점이라고 여겼던 다름이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혼식을 올린 지 17년이 되었고, 서로 알게 지낸 것으로 하면 20년도 넘은 아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관계의 회복 없이 그저 유지했거나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된다.

결혼과 관련된, 부부와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고 정리하고 심지어 가르치기도 했다. 남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이 어떻게 다르며 기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가는 공부는 어느 정도 부부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데 유익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한 부부관계 안에서 그 지식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다름' 보다는 '같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세련된 경향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더 신실해 보인다는 생각(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와 같은 생각을 의미한다)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최근 나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다.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꼈던 부부 안에서 갈등의 소리들이 커져갔고, 결국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나는 열심을 다해 달리던 것을 잠깐 멈춰야 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멈춰 서서 다시 이 오래 전에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주제, 부부의 서로 다름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발견한 책이 <더 좋은 반쪽이 되는 법>이었다. 대중적인 글과 강연을 주로 하는 저자 릭 존슨은 적어도 한국에 있는 내게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다.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특별한 신학적 배경이 없다는 그의 이력은 이전에 읽었던 다른 저자들의 이력에 비해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막상 책을 펼쳐 읽은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저자의 솔직함과 통찰, 그리고 적절한 조언들에 무릎을 치게 됐다.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온 책이었다.



더 좋은 반쪽이 되는 법
릭 존슨 | 채천석 · 조미숙 역
그림심 | 277쪽

저자는 남과 여의 다름에 집중한다. 그리고 남자는 양태를 의미하는 '모드'라는 단어로, 여자는 분위기를 의미하는 '무드'라는 단어로 그 차이를 강조한다. 7가지 남녀의 특징과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양식의 다름, 그리고 그 다름을 지지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들려주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서론을 통해 밝힌다.

"남편이 아내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인식할 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의 활동 양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결혼은 일이 아니라 경이로움이 되고, 좌절이 아니라 매력으로 다가온다. '단순히 함께 거하기' 위하여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같이 있게 된다 (22쪽)."

책은 목차만 봐도 뭘 이야기할지 알 수 있을 만큼 심플하게 구성돼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심플한 구성 안에 들어 있는 각각의 내용이다. 저자는 놀랄 만큼 솔직하게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고,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것을 들려준다.

1장에서 남자의 첫 번째 모드를 '성관계'라고 정리한다. 남자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남자를 남자라고 부르는 가장 강력한 특징을 '성관계'라고 말하는 저자의 논리를 듣다보면, 은연 중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는 저자의 글과 그 논리에 감탄하게 된다. 저자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를 이야기하며, 돌려서 거룩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2장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남자들이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식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일과 가정을 반대되는 것처럼 아내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남자에게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일이라고 하는 장에서 밀려난다는 것이 왜 존재의 근원을 흔들게 되는지 저자는 인간의 기원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일곱 가지 남자의 '모드'를 우선순위로 살펴본 저자는, 이제 여자의 일곱 가지 '무드' 부분을 이야기한다. 남자인 저자의 한계인 지도 모르지만, 남자의 그것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역시 많은 부분에서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오래 함께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에서 몰랐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각 장 마지막 부분에는, 앞의 내용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부분과 압축된 문장으로 마음에 새겨놓아야 할 문장들, 치유하는 말과 상처를 주는 말이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되어 있다. 책을 읽고 정리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읽어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독자들을 향한 구체적인 정리와 실천 가이드를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한 것이다. 남녀의 차이에 대한 많은 책을 이미 읽었다.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책들도 여럿 읽고 들었다. 그런데 이 책이, 최근 내가 경험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익했다.

유명한 사람의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책을 펼쳐게 되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부부관계의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나누고 싶다.

조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먼 미래의 이야기 아닌 성도의 삶 변화시키는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안개 걷어내다



심자가와 보좌 사이: 요한계시록
매튜 에머슨 | 김광남 역
이레서원 | 120쪽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많은 상징들과 비유적 표현들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방황할 수 있다.

저자는 각 장들에서 몇 가지 주요한 상징과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토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하지만 워낙 얇은 분량의 책이다 보니 모든 상징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떤 상징과 비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지나치고 있다.

예컨대 천년왕국에 대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에 대한 관점이 그러하다.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도 그렇다. 그것은 독자들을 어떤 특정한 시선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본 이해와 관점을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자가 요한계시록을 가볍게 다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처음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읽는 이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주기적으로 통독하고 묵상한 이들이라면 이 책은 읽는 이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이 시리즈 제목처럼 '봉 떠 있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접하게 해줄 것이다.

저자가 여러 번 강조하듯이 요한계시록은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투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미래를 놓친 듯한 모습도 있다.

그렇지만 이 시리즈가 갖고 있는 원고 분량의 한계는 이 책에서도 드러난다. 몇 가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인다. 예컨대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이든가, 4, 5장에 나타나는 광경이 갖는 복음의 의미, 일곱 봉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대접의 비교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설명의 결여는 많은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이 책의 부족이나 한계라기보다는 이 시리즈가 견지하는 목표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앞서 다루었던 욥기나 이번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후 나올 다니엘서처럼 각 성경을 이해하는 데 기본 도구를 주고, 또 머릿속에 머무는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이는 그저 탁상토론이나 지식의 보고에 지나지 않는 흔한 성경공부 시리즈를 넘어서게 한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쫓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www.sellacare.com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샀고려대 안암병원내 샀
입점

혈액 · 혈관 · 기운 · 면역

-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3.5	6.0	7.0
8.5	9.0	9.5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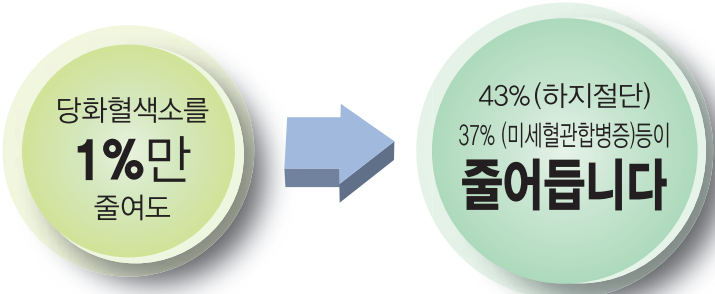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